



## 수성여중엔 ‘들사모’가 있어요



수성여자중학교에는 ‘들사모’가 있다. 들꽃을 사랑하는 모임의 클럽활동이름이다. 들꽃에 통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생태적인 감수성을 증진 시키기 위한 모임이다. 그런데 또 다른 들사모로 ‘숨들사’가 있다. ‘숨어서 하는 들사모’라고 이름을 스스로 지어 붙였다. 이유는 들사모가 아니면서도 학교의 생태활동에 대하여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수업이 끝난후 새로 만들어진 연못에 몇 가지 수생식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싶었지만 들사모 당번은 집에 일찍 가서 숨들사에게 부탁하니 캐히 도와주겠다고 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본관 정문앞 조희대에는 커다란 화분이 좌우에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노랑어리련을 심었는데 아주 보기 좋게 잎이 퍼졌고 꽃도 연이어 피고 있다. 그런데 녹조류가 너무 번식하여 건져내주는 작업을 하였다. 물에 들어있는 녹색의 조류

를 싫어할 듯한데 오히려 재미있어 하였다. 아마도 노랑어리연꽃은 이들 덕분에 더 잘 자라게 될 것이다.

별써 만든 지 2년째 되어가는 백운동산의 일부가 훼손되어서 복원한 곳은 좀 쓸렁하지만 다른 부분은 들꽃이 자라는 동산으로서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동네 꼬마들이 자주 놀러와 돌멩이를 던져 넣고 하며 훼손하는데 마침 큰나무가 있어 잘라서 울타리를 쳐주어서 보호가 잘되고 있다. 날마다 찾아와서 한바탕 노는 개들 빼고는 쉽게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이다. 작은 연못의 수생식물도 많이 번식하여 잘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 이곳의 수생식물중(꽃창포, 줄, 부들, 노랑어리연) 일부를 새로 만들어진 큰 연못으로 옮기려고 한다.

물 속에서 자라서 쉽게 뽑힐 줄 알았는데 뿌리를 깊이 박고 있어서 끄끄대며 겨우 뽑아내었다. 잔뿌리가 많이 상하지 않았나 모르겠다. 학교에서 리어카를 끄는 것을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다. 아마도 일꾼 같아 보여서 그럴 것이다. 그런데 숲들사는 이것을 무척 재미있어한다. 뽑은 수생식물을 신고 옮겼다.

새로 만든 연못은 거름이 거의 없는 마사토로 되어 있어서 잘 살지 모르겠으나





너무 번식하면 뽑아내는 것도 큰 일이 될 것 같아서 자배기 안에 심었다. 연못 안에 버려진 몇 가지 쓰레기도 치웠다. 오늘의 일을 보람 있게 마치고 리어카를 제자리에 도리기 위해 가는 동안에 빈 수레로 갈 수 없다고 타고 간다. 장난스러움이 있어야 일도 즐겁고 재미있지만 조금은 위험하기도 하여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그대로 놔두었다.

조금씩 학교를 가꾸어가는 일은 무척이나 흥미있는 일이다. 혹자는 왜 힘들고 더럽고 아저씨나 하는 일을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하겠지만 누가 해주기를 바라다면 아마도 아름다운 학교로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연은 생명력이 있어 조금만 손을 봐주어도 생명력 있는 변화로 응답을 한다.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죽제품의 가게에 들어가면 가죽냄새가 나고 꽃집에 들어가면 꽃향이 나듯이 자연이 어우러지는 꽃이 피는 동산이 있다면 자연 그들의 생각과 사고는 자연적인 감수성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연의 생태적 변화를 나 자신이 더욱 좋아한다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도 아낌없이 이런 일들을 즐겨할 수 있기 때문이다.